■ 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01-222.
http://doi.org/10.17948/kcs.2022..95.201

郭法鏡의 행적을 통해 본 친일-항일 구도의 재고

박재현(朴在顯)*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곽법경의 주요 행적과 미륵불교운동
3. 불교계 중앙기구에서의 활동과 위봉사 분규
4. 선학원과 일선융화
5. 마무리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친일 승려로 알져진 郭法鏡(1877-?)의 행적 연구를 통해 친일-항일 구도를 전제한 연구방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명하였다. 곽법경은 9년 동안 위봉사와 금산사 주지를 겸한 호남불교계의 거두였고, 일제강점기 조선불교계의 양대 기구였던 조선불교중앙총무원과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양쪽 모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 또 통도사와 범어사 등 영남지역 불교계와 경성 禪學院과의 관련성도 확인된다.

곽법경의 행적에는 賣佛 사건 등 친일적 행위가 뚜렷이 확인되지만, 항일 민족주의 경향으로 알려진 기관이나 기구에서 활동한 정황도 포착된다. 이렇게 서로 상치되고

* 동명대 선명상치유학과 부교수.

모순된 행적은 민족주의나 제국주의 혹은 친일- 항일의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 근대불교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학술연구에서 사전 구도의 문제점은, 구도에 걸리지 않는 자료는 도외시하게 만들며 결국 연구방법과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곽법경의 경우 친일-항일의 구도를 내려놓고 보면 그는 그냥 현실타협적, 실리추구적, 권력지향적 인물로 보일 뿐이다.

주제어: 곽법경, 위봉사, 선학원, 근대불교, 친일, 항일.

1. 들어가는 말

郭法鏡(1877-?)은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95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다. 또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로써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그는 친일승려로 자리매김되었다. 그의 대표적 친일 행적은 1917년 일본불교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메이지 천황의 능을 방문하고 메이지의 은혜가 무겁다는 내용의 찬양시를 써서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조직된 시찰단은 메이지 천황릉과 이세신궁,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을 참배했고, 그를 포함해서 여기에 참가한 인물들은 모두 후에 친일 행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법경은 또 1926년 일본인들과 함께 日鮮融和를 표방하며 조선불교혁신회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그리고 법당 안에 석가모니, 메이지 천황, 대한제국 고종을 함께 안치하여 정교일치의 국가를 건설하자고 주장했으며, 이런 내용을 적은 건의서를 소지하고 일본에 건너가 정계에 제출하려다 실패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또 1930년대에는 총독부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벌인 心田개발운동에 동참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친일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는 곽법경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그의 행적에서 친일과 부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항일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 간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그는 금산사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키려 획책했다는

혐의로 밀고 당한 적이 있다. 또 항일 민족불교 운동의 거점 내지는 비구들의 선수행 도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제하 조선 선불교의 구심점으로 평가되어 온 禪學院과의 관련성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한두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의 친일 행적을 부인하거나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의 생애에서 친일과 항일 양쪽에 해당하는 행적이 모두 나타난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까닭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적을 곽법경 개인에 국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일제하 한국불교의 여러 가지 양상 가운데 하나로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곽법경을 연구주제로 직접 다룬 연구성과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에 대해서는 근대 불교를 개괄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하거나 불교 친일 인사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그에 대한 기초 자료 역시 미미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를 통해 친일-항일의 구도를 넘어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불교를 조명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

2. 곽법경의 주요 행적과 미륵불교 운동

곽법경은 현재의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12세에 도봉산 망월사에서 출가했다. 1903년 경북 문경에서 대강백에게 법경이라는 호를 받고 강석에 올라 강설을 진행했으며, 1912년에 전주에 포교당을 설립하여 포교에 전념했고 1916년에는 전북 위봉사 주지에 취임하여 1925년까지 9년간 재임했다. 이 기간에 메이지 천황의 능을 방문하고 메이지의 은혜가 무겁다는 내용의 찬양시를 써서 발표하는 등의 친일행적이 두드러진다. 출가 이후 곽법경의 주요

1) 친일-항일의 구도로 한국 근대불교를 논구하는 연구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선행 연구 결과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조성택, 「근대불교학과 한국 근대불교」,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조성택,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민족주의적 역사 기술에 관한 비판」, 『민족문화연구』 5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박재현, 「근대 불교의 帶妻食肉 문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철학』 93, 한국철학회, 2007; 박재현,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 푸른역사, 2009.

행적을 여러 자료를 조합하여 정리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89. 도봉산 망월사에서 咸河 선사에게 출가
1903. 경북 문경에서 대강백 환착 선사에게 '법경'이라는 호를 받고 강석에 오름
1912. 전주 淸水町에 포교당 건립, 전라북도장관 李斗璜의 발기로 포교당 내 불교연구회 조직
1915. 12. 전주 威鳳寺 포교사로 재직
1916. 10. 전북 대본산 위봉사 주지 취임 인가[2](1925년까지 9년간 재임)
1917. 01. 30. 30본산연합사무소 常置員(상무위원) 선임[3]
1917. 8-9. 일본불교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 방문, 메이지 천황 능 방문 및 찬양시 발표
1918. 금산사 주지로 있으면서, 김형렬의 권유로 금산사 안에 '미륵불교' 교파 수립[4]
1919 01. 30. 30본산연합사무소 감사원 선임[5]
1919 11. 19. 위봉사 주지 재임 인가[6]
1919. 11. 위봉사 壇信徒 總代表 金亨烈 등이 주도한 太乙敎 사건에 연루, 전주포교당이 해산당하고 6개월간 구속, 무죄 석방.[7]
1921. 김형렬이 경성에 조직한 불교진흥회에서 수차례 강연.
1922. 01. 조선불교총무원 설치 임시 원장 취임
1922. 04. 10본산 협력 출자 방식으로 東光學校를 경영하기로 대표 청원[8]

---

2) 「本寺住持異動: 全州郡 威鳳寺 趙朗應-郭法鏡」, 『朝鮮總督府官報』, 1916.10.23. *이하 『朝鮮總督府官報』 출처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2022.3.10. 검색).

3) "朝鮮寺刹三十本山聯合事務所에서는 朝鮮寺刹三十本山聯合事務所 委員長 以下 當選된 任員을 다음과 같이 總督府에 屆出하다. 委員長 金九河 慶南 梁山郡 通度寺, 常置員 洪莆龍 江原道 平昌郡 月精寺, 常置員 郭法鏡 全北 全州郡 威鳳寺 (…)", 『朝鮮總督府官報』, 1917.1.23.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김형렬(金亨烈)' 부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1055) 참조.

5) "朝鮮各本寺聯合事務所는 役員을 다음과 같이 屆出하다. 委員長 金龍谷 慶尙南道 東萊郡 梵魚寺, 常置員 李晦光 慶尙南道 陜川郡 海印寺 (…) 監査員 郭法鏡 全羅北道 全州郡 威鳳寺 (…)", 『朝鮮總督府官報』, 1919.1.9.

6) "本寺住持就職認可: 全州郡 威鳳寺住持 郭法鏡, 高城郡 乾鳳寺住持 李雲坡", 『朝鮮總督府官報』, 1919.11.22.

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9, 시사문화사, 1991; http://db.history.go.kr/id/hdsr_009_0040_0030_0030(2022.3.10. 검색)

8) "從來 佛敎 三十本山이 聯合하여 經營하던 東光學校는 그동안 紛糾로 存廢問題까지 擡頭하였으나 今般 梵魚 通度 海印 祇林 威鳳 白羊 松廣 乾鳳 釋王 奉元 등 各寺 十本山의 協力 出資로 繼續 維持키로 하고 威鳳寺 住持 郭法鏡의 名義로 當局에 請願하였는데 今年은 雜種中等學校로 現狀을 維持하며 來年

1922. 05. 본산 주지 총회에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설립, 준비위원과 학무이사로 선임
1922. 09. 김형렬이 조직한 불교진흥회를 '미륵불교'로 고친 후 본부를 금산사로 이전.
1923. 위봉사 주지 재임 인가[9], 금산사 주지 겸직[10]
1924. 02 일본인 다수와 함께 합자회사 中村運送店(경성 소재) 등기이사 등재[11]
1924. 04. 재단법인 朝鮮佛教中央教務院 등기이사 등재[12]
1924. 옥구군 보천사의 건물 및 불상을 일본인에게 매각하여 고발당함
1925. 02. 주지 취직인가 취소, 금산사 주지 취직인가도 취소, 위봉사에서 잠적, 경성 안국동 禪學院主로 있으면서, 일선융화를 표방하며 조선불교혁신회 창립[13]
1926, 03 메이지 천황과 고종 태황제를 동시에 봉안한 사찰을 건축하기 위한 白書 작성, 일본에 건너가 일본 내각에 제출[14]
1928. 위봉사주지취직인가신청에 관한 건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불인가 통보
1930. 총독부 주관 심전개발운동 동참
1931. 금산사 주지직 李連應으로 변경[15]
1935. 전북 김제군에서 열린 심전개발 순회 강연 참여

위의 주요 행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곽법경이 일제의 불교정책에 꾸준히 협력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가 본격적으로 불교계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1912년 전주 포교당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당시 전라북도장관 이두황(李斗璜, 1858-1916)의 발기로 불교연구회라는 조직을 구성한 것만 봐도 그의 친일적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두황은 을미사변에

부터는 高等普通學校로 經營키로 하다."『東亞日報』, 1922.4.16.
9) "住持就職認可: 全州郡 威鳳寺 住持 郭法鏡", 『朝鮮總督府官報』, 1923.5.2.
10) "住持異動: (…) 金堤郡 金山寺 郭法鏡 (…)", 『朝鮮總督府官報』, 1923.9.3.
11) 『朝鮮總督府官報』, 1924.2.7.
12) 『朝鮮總督府官報』, 1924.4.28.
13) "中途에 頓挫된 佛教革新會 방법을 곳치여 운동", 『每日申報』, 1926.4.19. *이하 일제강점기 신문 잡지류의 출처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2022.3.10. 검색).
14) "前威鳳寺 주지 郭法鏡, 조선불교의 개혁 명분하에 日鮮융화 주장", 『東亞日報』, 1926.5.12.
15) "住持異動: (…) 金堤郡 金山寺 郭法鏡-李連應 (…)", 『朝鮮總督府官報』, 1931.2.2.

동조 가담했던 대한제국 시기의 무신이자 군인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망명한 바 있으며,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포함된 인물이다.

곽법경은 1916년 일제 강점기 31대본산의 하나인 위봉사 주지로 취임하고 그 다음해에는 본산연합사무소 상치원(常置員)으로 선임되었다. 이어 일본 불교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1919년에는 30본산연합사무소 감사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해 11월에는 위봉사 주지 재임 인가를 받았다. 위봉사는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로 편성되어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50개가 넘는 말사를 거느린 큰 사찰이었다.

그는 이렇게 일제가 제정한 사찰령에 의해 실시된 본산제도 하에서 관권에 의해 임명된 위봉사 주지직을 9년간 수행했다. 더욱이 조선 불교계 중앙기관인 연합사무소 상치원과 감사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1919년경까지 조선 불교계에서 그의 입지는 탄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굳건한 입지는 일제 권력층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친일행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1919년 11월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1919년 11월, 곽법경은 위봉사 단신도 총대표 김형렬 등이 주도한 태을교 사건에 연루되어 6개월간 구속되었다. 특히나 이 사건이 독립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점을 생각하면 그 이전의 곽법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었다.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성과는 거의 없는데, 신문지상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을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김형렬은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상제님을 모신 최초의 종도'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16] 1918년 8월 16일, 그가 당시 위봉사 주지로 있던 곽법경을 찾아가 태을교는 미신교로서 관헌의 단속이 엄중하여 공공연하게 포교

16) 역사학계에서는 김형렬을 일제강점기 금산사에 미륵불교를 설립한 창시자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1894년(고종 31) 10월 동학군이 서울을 향해 진군할 때 청주병영 근처에서 강증산을 처음으로 만났고, 1901년 강증산이 천지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8년 동안 시중들었으며 딸을 강증산에게 首婦로 내어주는 등 수제자 구실을 다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1055 (2022.3.10. 검색).

하는 일이 가능하지 못하나, 곽법경은 다행히 현재 절 신도의 권유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도를 표면적으로 절의 신도로 취급을 받도록 한다면, 위봉사의 경비는 물론 승려의 수당 등도 부담을 할 것이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곽법경도 승낙했다. 이로써 태을교도는 표면적으로 위봉사의 신도가 되어 공공연하게 위봉사와 그 말사(末寺)인 금산사 그리고 위봉사 전주포교당에서 회합하여 태을교 포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김형렬은 위봉사 전주포교당에서 스스로 절의 신도 총 대표가 되어 경기,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황해, 평북 및 강원도 각 도에 절의 신도 總代 백 명을 두고 태을교의 입교를 권유하면서 3·1운동 전후의 민심을 이용하여 조선의 독립을 언급하였다. 당시 위봉사에 비치된 태을교에 속한 절의 신도 명부에 의하면 약 4천 5백 명이 등재되어 있고, 미등재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곽법경은 금산사 승려 金益鉉에게 "태을교도로서 불교에 귀의한 자 현재 7천여 명에 달하고 이후 더욱 증가할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장래 조선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를 단행함에 모두가 단체의 세력에 기대하면 그 목적이 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은 김형렬과 모의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태을교도를 위봉사 절의 신도로 만들고, 암암리에 단체의 세력을 키운다면 장래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자신의 계획을 말하였다.[17]

곽법경과 김형렬의 만남은 줄잡아도 위봉사 태을교 사건 한 해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 곽법경이 금산사 주지로 있을 때, 김형렬의 권유로 금산사 안에 '미륵불교' 교파를 수립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1918년 9월 위봉사 전주포교당에서 발행한 불교신도증도 공개된 바 있는데, 여기에 미륵불을 숭봉(崇奉)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18]

---

17)"김철수 교수의 〈잃어버린 역사 보천교〉(14): 제주도 법정사의 항일운동과 보천교", 『한韓문화타임즈』, 2017.12.08, http://www.hmh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4(2022.3.10 검색).

18)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국사에 소장된 1918년 9월 24일자로 발급된 당시 위봉사 전주포교당 신도증의 앞면에는 '南無彌勒尊佛' '諸惡莫作' '衆善奉行'이란 글씨와 더불어 신도 이름, 주소, 발행일, 발행처 등이 적혀 있고, 전주포교당 직인도 찍혀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 불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수행 정진을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세계에 불교가 有함은 우리들의 생명이

곽법경과 연관된 태을교 사건이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성행했던 신흥종교의 교세확장 사건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사건의 정황은 일제강점기의 기록문건인 「태을교도 검거에 관한 건」(太乙教徒檢擧ニ關スル件)[19]에 자세히 남아 있는데, 기록을 보면 당시 경무국은 1919년 11월부터 전라북도에서 태을교를 일종의 迷信邪教로 보고 검거에 착수하여 조사한 결과 보안법 위반으로 신병과 함께 사건을 소관 검사국으로 송치했다. 주요 혐의는, 김형렬과 곽법경이 불교도라는 가명 뒤에서 태을교도를 규합하여 자신들의 私腹을 채우고 또 장래 同教의 단체적 세력을 이용하여 불온한 계획을 도모했다는 것이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위봉사의 태을교 사건이 항일독립운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그 혐의는 끝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곽법경은 6개월간 구속 수감되어 조사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석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일독립운동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일제강점기에 미륵사상을 연결고리로 하여 태을교(보천교, 선도교 등)와 불교계가 중첩된 사례는 위봉사나 금산사 말고도 제주도 法井寺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18년 10월에 있었던 법정사 항일운동 역시 仙道教와 불교가 뒤섞인 사례로 주동자인 법정사 주지 金蓮日이 승려인지 여부부터 이견이 있다. 그리고 김연일과 법정사에서 항일운동을 함께한 교도 30여 명이 선도교 신자였다는 점에서 금산사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20]

일제강점기 미륵불교 운동의 성격을 항일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본 연구의 주제도 아니고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다. 필자는 일제강

라, 즉 중생으로 하여금 苦海에 위안을 얻게 하고 三災를 해탈케 함이라. 諸氏는 信仰하시오. 當來龍華世界의 三會導人하시는 慈氏彌勒尊佛을 (…) 주의: 이 증서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교를 믿는 자에게 이를 교부함. 이 증서를 받아 지니고 있는 자는 특히 미륵존불을 崇奉함"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불교신문』, 2020.09.24.

19) 『高警』 36610, 「太乙教徒檢擧ニ關スル件」 全羅北道知事報告要旨, 1919.12.26., http://db.history.go.kr/id/kd_038_0010_1090 (2022.3.10. 검색).

20) 윤소영,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87-120면 참조.

점기 위봉사와 금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미륵불교 운동에 곽법경이 협조하거나 가담한 배경과 동기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일제 경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을교 사건은 김형렬이 주도했고 곽법경이 이에 협조한 정도로 이해된다.

김형렬이 위봉사의 경비는 물론 승려의 수당 등도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협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곽법경은 미륵운동을 주도하거나 깊이 관여했다고 보기보다는 태을교의 성지나 다름없는 금산사의 주지라는 자신의 위상을 이용하여 실리를 챙기려고 했다는 정도로 파악된다. 사건 이후 전주포교당이 해산당하고 그는 6개월간 구속되어 조사받다가 무죄석방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검찰국에서도 그의 미륵운동 가담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3. 불교계 중앙기구에서의 활동과 위봉사 분규

태을교 사건 이후 미륵불교운동을 주도했던 김형렬은 경성으로 자리를 옮겨 1921년에 불교진흥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곽법경과의 교류는 불교진흥회에서도 꾸준히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21] 그리고 1922년 9월에는 불교진흥회를 미륵불교로 고치고 본부를 다시 금산사로 옮겼다. 이즈음에 곽법경은 이중적인 행적을 보이는데, 1922년 1월에는 조선불교총무원 임시 원장으로 취임했고 그 해 5월에는 또 본산주지총회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준비위원과 학무이사로 선임되었다.[22]

조선불교총무원은 3·1운동 이후 조선불교유신회의 사찰령 철폐운동이 전

21) "불교진흥회에서 郭法鏡氏의 佛教에 關한 강연회", 『東亞日報』, 1921.11.27; "불교진흥회본부에서 郭法鏡氏가 楞嚴經 강의", 『東亞日報』, 1922.4.15.; "佛教振興會 강연회: 天上天下唯我獨尊(郭法鏡)", 『東亞日報』, 1922.5.3.

22) "朝鮮佛教 三十本山 住持總會를 26日부터 오늘까지 覺皇寺에서 開催하고 다음 事項을 決議하다. 1. 佛教의 中央統一機關으로 60萬圓의 財團法人인 朝鮮佛教中央教務院을 設立한다. 이의 準備委員으로 任期 1年의 理事 5名 監事 3名을 다음과 같이 選任한다. 庶務理事 李晦光(海印寺), 學務理事 郭法鏡(威鳳寺), 教務理事 金一雲(楡岾寺), 社交理事 姜大蓮(龍珠寺), 財務理事 申鏡虛(大興寺), 監事 玄鼈龍(長安寺)·權相老(金龍寺)·金栽善(松廣寺) (…)", 『東亞日報』, 1922.5.28·29·30; 김순석,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71-99면 참조.

개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조직으로 10본사만으로 구성되어 30본산체제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1921년 12월, 민족불교 성격을 띠는 불교유신회가 발족했고, 통도사 · 해인사 · 범어사 · 기림사 · 석왕사 · 백양사 · 송광사 · 봉선사 · 위봉사 · 건봉사 등 10개 본산이 불교유신회와 뜻을 함께했다. 이후 통도사 · 범어사 · 석왕사 세 본산이 중심이 되어 불교계의 단일기관인 총무원을 설립했다. 당시 위봉사 주지였던 곽법경은 이때 총무원의 임시원장으로 선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반하여, 조선총독부의 지시를 받은 본산들이 중심이 되어 1922년 5월에 총무원 체제를 부정하는 새로운 단일기관인 조선불교교무원 설립을 결의했다. 이렇게 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이사진 명단에도 위봉사 주지 곽법경이 보인다. 교무원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을 배경으로 하는 30본산 통일기관이었다. 총무원과 교무원은 도끼로 서로의 간판을 깨부수고 법정 다툼을 벌일 정도로 대립하는 관계였다.[23]

양 기구 사이의 갈등국면은 1923년 1월에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1924년 연초까지 갈등상황을 연출하다가 같은 해 3월에 통합 재단법인으로 단일화되었다. 앞의 기록에서 두 번째로 눈길을 끄는 것은, 통합된 교무원에서 곽법경은 이사로 선임되어 지속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했던 데 비해서 이회광은 "그저 評議員으로 讓退하고 마렷다."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회광은 일제의 은근한 후원을 받고 있었던 교무원의 대표자였던 데 비해서, 곽법경은 일제의 불교정책에 반발한 조선불교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10본산을 주축으로 결성된 총무원을 대표했다. 그런데 총무원이 교무원에 흡수통합되었는데 정작 이회광은 양퇴하고 곽법경이 통합기구를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된 것이다.[24]

1924년 6월에 발간된『開闢』제48호에는 경성에 소재한 여러 종교기관의

---

23) "스님 上座의 亂鬪",『東亞日報』1923.5.29.

24) 통합된 교무원의 첫 사업은 보성고보 경영권 인수였다. 총무원과 교무원의 합동으로 인하여 보성고보의 경영 주체는 총무원에서 교무원으로 바뀌었고, 보성고보의 설립자 변경이 1924년 4월 2일 완료되었다. 김광식,「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311-350면 참조.

본부를 방문하고 이를 간단히 소개한 기사형태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천주교회, 러시아정교회 그리고 천도교와 시천교 등 다양한 종교기관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불교중앙교무원에 대해 적은 내용을 살펴보자.

> 승려가 머리 들고 京城 안에 드러 오기 시작한 것이 도대체 몃 10년을 지내지 못하엿다. 李朝에서는 그와 가티 佛教를 厭忌한 동시에 서울城 안에는 한 개의 사찰도 세우지 못하게 하얏다. 따라서 서울 안에는 불교의 세력 有無를 말할 餘地가 업섯다. 物換星移하며 승려의 京城 출입이 자유롭게 됨을 따라, 隆熙 元年에 처음 東大門 밧게 圓宗 宗務院을 두고 李晦光 씨가 중심이 되야 이럭저럭하다가 日韓合邦의 翌年 辛亥 9월에 소위 寺刹令이란 것이 發布되며 그 翌年에 30本山 住持會議所를 設하고, 大正4년[1915년]에 30本山聯合事務所로 變名하야 姜大連 씨가 제1회 위원장이 되야 이럭저럭 내려오다가 상호간의 감정이 됴치 못하야 大正11년[1922년]에 總務院과 教務院으로 분립되며, 總務院에 郭法鏡, 教務院에 李晦光 등 兩便의 싸움이 해를 두고 끗츨 못 막다가 今年 3월에 비로소 해결되야, 兩院 합동으로 60만 원의 財團法人을 완성하야, 제1着으로 普成高普를 경영하며 점차로 포교 기타의 사업에 착수하게 되엿다. 현재의 理事는 郭法鏡, 羅晴湖, 金月齋, 金九河, 金一雲, 柳護菴, 吳梨山 7인이며, 曾前舊派의 중심세력으로 인정되던 李晦光, 姜大連 兩氏는 그저 評議員으로 讓退하고 마럿다.[25]

앞의 방문기를 보면 1922년 조선불교계는 중앙기구가 총무원과 교무원으로 양분되었고 곽법경과 이회광이 양쪽 기관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즈음에 공식적으로나 여론상으로 곽법경은 조선불교계에서 이회광에 필적할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 초반, 조선 불교계는 개혁성향의 '총무원'과 주지를 중심으로 한 보수성향의 '교무원'으로 나뉘어 갈등을 거듭하면서 무력으로 서로 치고받는 상황까지 이어졌던 혼란한 시기였다.[26] 이러한 상황에서 곽법경은 1922년 당시 같은 시기에 성격이 상반되는 두 기구에 대표급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이상한 행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25) 起瀍, 「在京城 各教會의 本部를 歷訪하고」, 『開闢』 48, 1924.06.01.
26) 김성연, 「재단법인 朝鮮佛教中央教務院의 자산 운영과 한계」, 『불교학연구』 27, 불교학연구회, 2010, 11면.

곽법경은 1923년까지 경성과 전주를 바쁘게 오가며 조선불교계의 주요 직책을 맡아 입지를 굳혀나갔다. 중앙에서는 총무원과 교무원 양 기관 모두에서 대표성을 갖는 직책에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위봉사와 금산사 양 사찰의 주지 취직 인가와 재인가를 받아냈다. 게다가 1924년에는 일본인들과 함께 합자회사 中村運送店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27]

이렇게 조선불교계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곽법경은 1924년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옥구군 보천사의 건물과 불상을 일본인에게 매각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보천사는 위봉사 산하에 있다가 폐사된 사찰이었는데, 그 사찰 건물과 불상을 곽법경이 일본인에게 몰래 매각했다는 혐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다음해인 1925년 2월에 그의 위봉사와 금산사 주지 취직인가도 취소되었다.[28]

그런데 사찰건물과 불상을 일본인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친일적 행위처럼 보이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위봉사 주지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전주 威鳳寺에서는 前住持 郭法鏡이 문부를 가지고 도망했기 때문에 사무를 인계하지 못하여 곤란하였었다. ▲근일에 간신히 그 문부를 찾고 보니 임시 주지가 둘씩이나 되어서 두 파의 爭奪戰 아마 극렬한 모양 ▲南無阿彌陀佛을 자나 깨나 불러서 극락에 환생을 발원할 때에 이 법은 正等 正覺뿐이라 하여 萬法俱空을 주장하는 청정생활로 주지 하나가 무엇이기에 그와 같은 추태를 드러내느냐. ▲만승의 존엄과 부귀를 부운 같이 알던 석가세존의 참뜻을 좀 본받아 보라.[29]

1925년 5월 15일자 『時代日報』에 실린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곽법경은

---

27) 中村運送店의 등기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松治三郎, 松清治郎, 市丸辰治, 中村芳松, 野田源五郎, 清水久藏, 眞野泰一郎, 森井勝次郎, 江守吉右衛門, 李▣光, 姜大蓮, 郭法鏡, 金一雲. 『朝鮮總督府官報』, 1924.4.28.

28) "全羅北道 全州郡 所陽面 威鳳寺 住持 郭法鏡 及 忠淸南道 公州郡 寺谷面 麻谷寺 住持 兪寅明의 住持就職認可는寺刹令施行規則 第五條에 依하야 모다 二月 十九日 此를 取消하다", 『佛教』 10,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BM_00013_0010_T_001&imgId=0010_0028_a(2022.3.10. 검색); 『朝鮮總督府官報』, 1925.2.25.

29) "威鳳寺紛糾 住持爭奪戰", 『時代日報』, 1925.5.15(*기사내용은 필자가 현대어법에 맞게 일부 수정).

그해 2월에 위봉사 주지 취직인가 취소를 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사찰의 장부를 모두 챙겨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3년 4월에 위봉사와 금산사 양 사찰의 주지 재임을 인가받았으니,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주지직 인가가 취소되었던 것인데, 기사 내용을 보면 후임 주지 임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임시 주지가 둘씩이나 된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보면, 총독부에서 임명한 주지와 곽법경이 내세운 주지가 서로 다투는 형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봉사 주지 자리를 둘러싼 사찰 분규는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일제 강점기 기록문건인 「위봉사주지취직인가신청에 관한 건」은 1928년 1월 18일자 기안으로 3월 8일 발송되었는데, 인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전체 346면 분량으로 수년간에 걸친 전 주지 곽법경과 사승관계인 주지 후보 趙朗應과 이에 반대하는 吳慶山 등과의 '분규' 관련 진정서 및 이에 대한 전주군 및 전라북도, 조선총독부의 현지조사보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측의 현지조사보고는 역시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의 '복명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곽법경 측에서 내세운 조낭응은 원래 위봉사 주지를 맡는 등 위봉사의 승려였으나, 移籍하여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 적을 두고 있었다. 이때 곽법경의 주지취직이 취소되자 향후 드러날 그동안의 전횡사실을 감추고자 위봉사 이외의 승려인 조낭응을 주지로 취직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同氣同類'에 의한 사찰 유지의 폐해를 지적하며 조낭응의 주지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불인가 조치를 내린 것이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30] 총독부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분규는 종결되지 않았다. 1929년 8월 8일자 신문기사에까지도 위봉사 분쟁의 심각성이 여전히 확인된다.[3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무원-친일〉, 〈총무원-항일〉의 구도로 보면, 곽법경의 행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겨우 설명해 본다면 항일노선에서 친일노

30)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 사회교육편』,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65471#%EC%9A%94%EC%95%BD(2022.3.10. 검색).

31) "청정법계가 爭利로 수라장, 구파는 결사대를 조직하고, 신파는 경찰에 비밀투서, 전주 위봉사 분쟁", 『中外日報』, 1929.8.8.

선으로 4개월 만에 전향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미진함이 남는 설명이다.[32] 그는 불교계 내부의 진보와 보수, 친일과 항일 같은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세력 구도에 별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입지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면 어떤 자리든 가리지 않고 나서는 실리추구형, 권력지향적 인물이었다고 보는 게 차라리 자연스럽지 않을까.

4. 선학원과 일선융화

위봉사 분규상황과 행정적 다툼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1925년경 곽법경은 느닷없이 경성의 禪學院과 연관된 행적을 드러낸다.[33] 주지하다시피 선학원은 일제하 민족불교의 거점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며, 만공과 만해 등 항일의식이 강한 인물들과 관련이 깊은 기관이다. 우선 이렇게 항일과 민족주의적 성격의 기관으로 알려진 선학원과 친일 성향으로 알려진 곽법경이라는 인물이 서로 잘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선학원 관련한 기존의 연구성과나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한 소개 및 연혁에서 곽법경이라는 인물은 일체 언급된 바 없다. 이 때문에 선학원과 연관된 곽법경의 행적은 더욱 눈길을 끈다.

1926년 4월 19일자 『每日申報』를 보면 "中途에 頓挫된 佛教革新會 방법을 곳치여 운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보인다.

> 시내 安國洞 **禪學院主 郭法鏡**씨와 정목일랑(正木一郎)씨의 주창으로 조선불교혁신회가 창립되어 종교적으로 日鮮融和 운동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실적을 관철하고자 明治天皇과 李太王의 어존령을 奉祀하는 사찰을 건축하려고 벌써부터 전

32) 윤기엽은 곽법경이 이회광과 더불어 총무원을 결성하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하였지만, 조선총독부와 연계된 교무원에 합류하는 친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총무원이 설립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은 함께 자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총무원에 소속되었지만, 총독부의 지시로 강대련이 중심이 된 보수적인 본산 주지들의 결집체인 교무원이 설립되자 두 사람은 전향하여 이회광은 교무원의 서무이사로, 곽법경은 학무이사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윤기엽, 「근현대 불교인물 탐구⑧ 이회광」, 『불교평론』 53, 2013 참조.

33)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 포털서비스, https://moveforward.library.kr/person/personDetail.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earchSort=&tab=person&mngAreaCd=&dtaSldrtyCd=&actionRealmCd=&clturRealmCd=&archvNttNo=126(2022.3.10. 검색).

> 긔량씨는 상동하여 내각에 建議書를 제출하였었는데 요즈음 정부에서는 그 취지는 찬성이나 정치적 의미를 띄운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그 건의서는 각하가 되어 그 운동은 결국 유산이 되었는데 전긔량씨는 다시 국면을 바꾸어 가지고 연방법으로 운동을 계속할 모양이더라[34]

여기서 禪學院主라는 표현이 선학원 대표라는 뜻인지 아니면 선학원에서 院主 직책에 있다는 뜻인지는 분명치 않다. 어쨌든 매일신보에서는 곽법경이라는 이름 앞에 선학원주라는 직명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적어도 1926년 4월 19일 이전부터 그가 선학원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곽법경과 선학원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는 위봉사 분규와 관련된 조선총독부기록물철이다.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소화3년(1928)에 생산한 문건 가운데 총 827면으로 엮인 「사찰주지취직인가 신청의 건」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위봉사와 傳燈寺의 주지취직인가 신청에 대해 조선총독부의 불인가 관련 기록을 한데 편철한 것인데, 해당 기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해제 내용이 보인다. 위봉사 조낭응의 경우 그의 '安居' 경력을 증명하는 곽법경의 증명서가 '선학원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은 결정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료의 면밀한 검토 속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35]

하지만 필자가 본 연구과정에서 전산상에 공개되어 있는 해당 기록물 원문을 낱낱이 살펴보았지만 해제에 설명된 '선학원용지'에 기재된 안거증명서는 볼 수 없었다. 해제는 실제 종이 문서를 토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해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 아마도 전산화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누락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안거증명서와 그 발행 일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해제 내용에 의거하면, 조선총독부기록물철에 있는 「사찰주지취

34) 『每日申報』, 1926. 04. 19,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http://viewer.nl.go.kr:8080/main.wviewer?cno=CNTS-00094279599(2022.3.10. 검색).
3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65471(2022.3.10. 검색).

직인가 신청의 건」에 포함된 문서 가운데 선원학용지를 사용한 곽법경의 공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해제의 설명처럼, 이것이 곽법경과 선학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모종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된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곽법경과 선학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 현재까지 근대불교 분야의 선학원 관련 연구성과에서도 그의 선학원 관련 내용이 개진된 바 없다. 그럼에도 곽법경이 선학원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그는 출가 이후 초기의 승려생활을 부울경 지역에서 했고 김용곡 등 당시 범어사의 종권을 쥔 승려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따라서 선학원의 설립과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범어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곽법경이 선학원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선학원은 개설 초기에 운영난에 직면하고 1922년 11월 27일 선학원 건물이 범어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24년 3월 29일에는 선학원 대지도 범어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또 1926년 5월 1일에 선학원은 범어사 포교당으로 전환되었다. 선학원은 사실상 설립초기부터 범어사 소속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인적 물적으로 범어사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36]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범어사 주지를 지낸 金龍谷(?-?)이다.[37]

김용곡은 1917년 부산 범어사 금어암에 설치되어 있던 명정학교 교장을 맡았으며, 그해에 범어사 주지에 취임했다. 일제는 1917년에 제1차 불교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는데,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에 곽법경과 더불어 김용곡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곡은 1918년에는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불교 중앙기관인 30본산연합사무소의 상치원으로 임명되었다. 또 1919년 30본산연합사무소가 개최한 제8회 주지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36) 범어사와 선학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박재현, 「금어선원을 통해 본 한국 선원의 근대성」, 『항도부산』 4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413-442면.

37) 김용곡 역시 곽법경과 마찬가지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중 종교 부문에 선정되었다.

이렇듯 범어사 주지 김용곡의 행적은 곽법경과 많이 겹친다.

김용곡에 앞서 1911년 11월부터 1917년 12월까지 범어사 주지를 지냈던 오성월은 공문서 위조 행사에 따른 횡령 사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임에 실패했다. 해인사 주지 이회광이 1911년 11월부터 1924년 9월까지, 통도사 주지 김구하가 1911년 11월부터 1926년 8월까지 각각 네 차례와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임했던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38] 오성월의 항일독립운동 행적과 성향에 비춰볼 때, 1917년 당시 김용곡의 주지 취임은 범어사의 종권이 친일 승려들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표면적으로 일제의 불교 정책에 우호적인 모양새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곽법경은 범어사 종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김용곡과 매우 가깝게 지낸 사이였고 많은 행적이 겹친다. 따라서 범어사가 선학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는 과정에도 곽법경은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곽법경의 불교계에서 주된 활동 지역은 호남이었지만, 출가 이후 경북 문경에서 대강백 환착 선사에게 법경이라는 호를 받았고, 강석에 오른 1903년 이후부터 1912년 전주 淸水町에 포교당을 건립하기 이전까지 부울경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 반민특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곽법경을 스승으로 하여 출가한 승려 韓凌海라는 인물이 보이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56세였고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1949년 6월 13일로 기록된 신문조서에서 한능해는 자신이 15세 때 가세가 빈한하여 경남 양산군 통도사 곽법경을 師僧으로 삼아 童僧으로 가게 되어 일 년 간을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39] 이 진술에 따

38) 윤석환,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52-53면; "梵魚寺 주지의 유산 횡령 사건, 일곱명 공판에 부침", 『每日申報』, 1917.12.18,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2022. 3.10. 검색).

39) 문:"승려 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답:"소생은 원래 5형제의 4남으로서 가산이 풍부한 처지였는데 長兄으로 인하여 파산상태에 이르러 고모부의 아들과 동행하여 慶南 梁山郡 通度寺 곽법경[郭法鏡]을 師僧으로 削髮爲僧한 것이 동기로 된 것입니다." 문: "前記 통도사에서 승려로 몇 해나 도를 닦았는가." 답: "통도사에서 약 1년간 있다가 조모를 위하여 採藥 상경하였을 적에 모친의 만류로 일단 還俗하였습니다." 문: "그 후는 무엇을 하였는가." 답: "생활이 극빈하여 東亞煙草株式會社에 취직하

르면 곽법경은 1910년 무렵에 통도사에 주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0]

이렇게 곽법경이 선학원과 관련되어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고, 특히 위봉사 주지취직인가가 취소된 이후 경성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선학원을 활동 거점으로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곽법경의 직책을 선학원주로 지칭한 매일신보와 거의 같은 시기 다른 신문 기사를 보면 경성에서 그의 활동 내용이 좀더 드러난다. 1926년 5월 12일자 『東亞日報』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확인된다.

> 이달에 賣佛事件으로 면직을 당한 前威鳳寺住持 郭法鏡과 金寶雲·李晦光·金九河 등이 最近 日本人 正木一郎·宋鎭玉 등과 의론하고 所謂 朝鮮佛教를 改革한다는 이름 밑에서 日鮮融和를 目的으로 한 宗教運動을 하려고 그들의 代表者인 郭法鏡이 長文의 建白書를 휴대하고 日本 東京으로 건너가 日本首相에게 제출하려고 노력하다. 그 建白書의 內容은 現在 朝鮮佛教의 모든 기관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 京城 안에 朝鮮佛教總本山을 건설하고 그 本山法堂 안에 釋迦如來·明治天皇·高宗太皇帝를 한자리에 安置하여 政教一致의 日鮮融和를 철저히 실행하겠다는 것이다.[41]

이 기사를 보면, 곽법경이 위봉사 주지에서 최종적으로 면직된 때는 1926

여 한편 야학으로 공부하고 그 후 사설 연초회사에 전직하였으며 同 회사원의 알선으로 중학을 修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前記 이력과 如히 각 방면에 사업을 경영하다가 4267년[1934]경 인천부 간석동으로 이주하여 약사암을 창설, 주지로서 승려생활을 재출발한 것입니다."「한능해(韓凌海)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반민특위조사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an_060_0120(2022.3.10. 검색).

40) 문:"피의자는 15세時에 慶南 通度寺의 童僧으로 일년간 종사한 사실이 있는가." 답:"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문:"피의자가 동승으로 종사하게 된 동기如何." 답:"가세가 빈한하여 고모부의 아들과 같이 부친의 승낙으로 慶南 梁山郡 通度寺 곽법경[郭法鏡]을 師僧으로 삼아 童僧으로 가게 되어 일년간을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문: "피의자가 右와 如히 일년간 승려(동승)생활을 마친 후에는 如何히 되었는가." 답:"일년 후에 본인의 조모가 당시 중병으로 臥席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귀가하였다가 재차 통도사로 가려 하였으나 본인의 모친이 절대 반대하므로 부득이 가지 못하고 가사에 종사하다가 본인이 20년 당시부터 선친께서 경영하시는 전당포를 서울 종로4가 번지미상에서 약 5,6년간 승계 경영하다가 본인이 26세 時부터 약 3년간 서울시 수은동 번지미상에서 가구점을 경영한 후에 본인이 30년時 頃 日字不詳頃부터 서울시 授恩洞 番地未詳에서 철물공업을 약 2년간 경영하였습니다." 「한능해(韓凌海)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반민특위조사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an_060_0180(2022.3.10. 검색).

41) 『東亞日報』, 1926.5.12.

년 5월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면직 사유는 이른바 매불사건이었다는 것도 드러난다. 이후 위봉사를 떠난 그는 金寶雲·李晦光·金九河 등과 함께 일선융화를 목적으로 한 종교운동을 모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26년에 있었던 일선융화 책동에는 이회광과 곽법경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김보운과 김구하가 가세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42] 김보운은 이회광의 스승으로 건봉사 주지를 역임한 적이 있고, 김구하는 통도사 주지와 30대 본산연합사무소의 제3대, 제4대 위원장을 지낸 승려였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종교운동이 일선융화라는 다분히 친일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재 조선불교의 모든 기관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 경성 안에 조선불교총본산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곽법경은 총무원과 교무원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고 동시에 양 기관의 대표성을 띠는 위치에 있었다. 1926년경의 그는 여전히 통폐합이든 신설이든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총괄기구를 만들고 자신이 그 기구의 중심이자 대표가 되는 길을 향해 일관되고 집요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곽법경의 이런 행적은 친일보다는 실리추구 권력지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학원-항일〉, 〈곽법경-친일〉의 구도로는 그의 이런 행적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과 구도를 견지한다면, 향후에도 선학원과 곽법경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자료는 도외시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5. 마무리

42) 당시 신문기사에 실린 내용과는 별도로 김구하의 친일행적과 관련해서 이견이 강하게 제시된 바 있다.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측이 친일인명사전에 김구하를 수록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통도사 측에서는 이의신청과 함께 이를 반박할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김구하의 독립운동 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1930년대부터는 뚜렷한 친일행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그를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 성과는 다음 논문을 참조.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대각사상연구원, 2011.

곽법경은 친일-항일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국 근대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일본불교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메이지 천황 능 방문 및 찬양시를 발표했고, 조선불교교무원에서 중책을 맡았으며 말년에는 심전개발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친일 행적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증산교 계열과 연계하여 항일독립운동 성격의 미륵불교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조선불교총무원의 대표를 지냈으며, 항일민족불교 운동의 거점으로 평가되는 선학원과의 관련성도 엿보인다.

곽법경의 친일 행적을 근거로 그동안 그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내려왔다. 이러한 평가는 분명 그 역사적 근거 위에서 뚜렷하고 자족하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 속에서만 본다면, 친일과 부합하지 않는 그의 행적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거나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마치 만해 한용운의 생애에서 대처옹호 입장처럼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행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주제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학술연구에서 사전 구도는, 그 구도에 걸리지 않는 자료는 도외시하게 만들며 결국 연구방법과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친일-항일 구도는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인물들을 설명하는 데 충분히 타당하고 가치 있는 구도일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불교의 경우에는 친일-항일 구도의 그물망으로 포착되지 않거나, 이 구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인물과 사건들이 너무 많다. 곽법경의 경우는 그 중에 한 사례에 불과하다. 친일-항일 구도를 내려놓고 그의 행적 자체만 두고 본다면 그는 그냥 현실타협, 실리추구, 권력지향 이런 수식어가 어울리는 인물로 보일 뿐이다. 곽법경이 남긴 행적을 한 개인의 잘못된 인생행로 정도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국 근대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는 수많은 곽법경들에 둘러싸인 한 사람의 곽법경에 불과했을 것이다.

▮ 참고문헌

『高警』 36610, 1919.12.26.
『東亞日報』, 1921.11.27; 1922.4.15; 1922.4.16; 1922.5.3; 1922.5.28·29·30; 1926.5.12.; 1923.5.29; 1926.5.12.
『每日申報』, 1917.12.18; 1926.4.19.
『불교신문』, 2020.09.24.
『時代日報』, 1925.5.15.
『朝鮮總督府官報』.
『中外日報』, 1929.8.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 9, 시사문화사, 1991.
起瀍, 「在京城 各教會의 本部를 歷訪하고」, 『開闢』 48, 1924.06.01.
김광식,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김성연, 「재단법인 朝鮮佛教中央教務院의 자산 운영과 한계」, 『불교학연구』 27, 불교학연구회, 2010.
김순석,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박재현, 「근대 불교의 帶妻食肉 문제에 관한 윤리적 고찰」, 『철학』 93, 한국철학회, 2007.
_____, 『한국 근대불교의 타자들』, 푸른역사, 2009.
_____, 「금어선원을 통해 본 한국 禪院의 근대성」, 『항도부산』 4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윤기엽, 「근현대 불교인물 탐구⑧ 이회광」, 『불교평론』 53, 2013.
윤석환,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윤소영,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조성택, 「근대불교학과 한국 근대불교」,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_____, 「근대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민족주의적 역사 기술에 관한 비판」, 『민족문화연구』 5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대각사상연구원, 2011.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포털서비스, https://moveforward.library.kr(2022.3.10. 검색).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2022.3.10. 검색).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2022.3.10. 검색).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http://viewer.nl.go.kr((2022.3.10. 검색).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2022.3.10. 검색).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2022.3.10. 검색).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2022.3.10. 검색).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2022.3.10. 검색).
한韓문화타임즈, http://www.hmhtimes.com(2022.3.10 검색).

【Abstract】

A reconsideration of the pro-Japanese/anti-Japanese composition through the actions of Gwak Beop-gyeong (郭法鏡)

Park, Jae-Hyeon*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method premised on the 〈Pro-Japanese/Anti-Japanese〉 structure were highlighted through a study on the conduct of Gwak Beop-gyeong (郭法鏡, 1877-?), known as a representative pro-Japanese mon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 nine years, he served as the head of both WeiBongongsa (威鳳寺) and Geumsansa (金山寺) Temple, and was in a position to represent both the Chosun Buddhist Central Office (朝鮮佛教中央總務院) and the Joseon Buddhist Central Academy (朝鮮佛教中央教務院), two major organizations in the Joseon Buddhist commun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though pro-Japanese behavior is clearly confirmed in his track record, it also captures the circumstances of his activities i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known for anti-Japanese nationalism. Such contradictory behavior could not be explained in the pro-Japanese/anti-Japanese structure, or it has been explained to the extent of conversion or renunciation. His deeds show a section of Korean modern Buddhism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pro-Japanese/anti-Japanese structure.

The problem with prior composition in academic research is that data that does not depend on the composition is ignored and ultimately the research method and scope are limited. In the case of Gwak Beop-kyung, if you put this composition down, he just appears to be a negotiating reality, practicality-seeking, and power-oriented person.

Keywords: Gwak Beop-gyeong 郭法鏡, WeiBongongsa 威鳳寺, Seonhakwon 禪學院, Korean modern Buddhism, pro-Japanese, anti-Japanese.

접수일: 2022.03.22.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12.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eon Meditation & Healing, Tongmyong Univ.